

## SUMMARY

### Intro) 소비시장으로써 매력적인 이란

- 거대한 소비시장 : 인구 8000만명 이상
- 주변국 지출국의 거점 지역 :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로는 터키와 이라크,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 나라를 접함
-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158억 배럴,9%),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32m<sup>3</sup>,18%)
- 이란 시장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제품 (기아자동차, 대장금, 태권도)

### Body) 이란 소비시장의 진출 전략 : KORAN Strategy

>>> 국가가 이슬람 원리를 토대로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초가 되는 이슬람공화국

#### 1) Knockdown 『 산업 협력을 통한 합작 생산(SKD·CKD)을 추진하라 』

- 이란의 극심한 자국 산업 보호 : 10등급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부품을 수출해 현지 조립생산을 하는 방법으로 대처  
ex) ATM를 생산하는 청호컴넷, 국민차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는 기아

#### 2) Observation 『 이란 시장의 독특함에 대한 관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 자국 역사에 대한 금지와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란
- 미국 주도의 일부 제재는 여전히 유효 (달러화 금지, 국제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 철저한 현지화 전략 요구  
ex) LG전자의 '지역특화형 제품', '현지화를 추구한 현지 서비스'

#### 3) Respect 『 이슬람 공화국의 관습을 철저히 존중하라 』

- 여성은 히잡을 써야하며, 남성은 반바지를 입을 수 없는 등 폐쇄적 나라 이란
- 이란 체제에 대한 선부른 비판은 삼가야 함
- 야바시(Yabash) 문화 : 이란인들은 매사에 느긋하여 기업들의 인내심이 요구
- 터로프(Taarof) 문화 : 모호한 페르시아어를 쓰는 이란인의 언어습관 파악 해야함

#### 4) Activeness 『 적극적인 초기 마케팅으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라 』

- 이란은 제조업국가이지만 시설이 낙후되고 자국산 제품의 질이 매우 떨어짐
- 서민층은 대부분 식료품 및 주거비에 지출, 부유층의 소비는 서구 상류층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막강
- 오랜시간 고립되어 서비스 및 마케팅 기술이 정교하게 발달하지 못함
- 초기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관건

#### 5) Neighborhood 『 떠오르는 주변국 시장, 진출의 거점은 이란이다 』

- 훌륭한 지정학적 위치 : 해안지대를 활용한 물류의 출입 활동 용이 / 육로를 이용해 유럽과 러시아로도 운송 가능
- 이란을 거점삼아 이웃 국가로 시장을 확대해나가려는 접근 필요 : 주변 국가만 3억명
- 이란 기업의 네트워크, 이웃 시장 접근성과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방식이 이상적

## WORD

### 이란에 대한 이해

---

#### 이슬람 공동체와 정교일치

이슬람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확인된 적이 없으며 사실상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슬람은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분리해놓고 그것들을 합일시켰던 것이 아니고 출발부터 이슬람공동체는 종교적 공동체이며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 생활의 모든 영역(정치·경제 문화·교육·군사·사법 등)을 통제하고 관할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는 종교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 의미의 '통치자'였다.

이슬람은 그 시작부터 국가와 종교를 구별하지 않았다. 무함마드가 세운 이슬람 공동체는 처음부터 국가로 불려야 했다. 그는 메카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신의 예언자로 출발했지만 메디나로 이주한 후에는 움마를 세우고 국가원수가 되었다. 비록 메디나의 정부는 단순한 형태였지만 움마는 민족, 영토, 통치권 등 국가 구성 요소를 분명히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였다. 신의 계시 또한 신에 대한 복종(종교적 복종)과 현세 통치자에 대한 복종(정치적 복종)을 동시에 가르쳤다.

오, 믿는 자들아 알라께 복종하라. 그리고 신의 사자와 너희 가운데 있는 율루 알 아마르(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

(꾸르안 4:59).

#### 이란혁명

1979년 2월 11일 팔레비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원리주의에 입각한 이란이슬람공화국을 탄생시킨 혁명.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팔레비왕조는 미·소냉전하에서 미국의 지원과 막대한 석유이윤에 안정기반을 구하고 국민에게는 탄압정치로 일관하였다. 1962년 이래의 백색혁명이나 1970년대의 석유이윤으로 추진한 근대화 는 신흥특권계층을 대두시켰으나, 이슬람원리의 전통을 붕괴시키고 농촌과 도시의 상공업 바자(市場)를 몰락, 파산하게 하였다. 이로 인한 인구이동으로 도시는 급팽창하였으며 국민들은 비밀경찰 사바크가 지배하는 암흑정치 아래 소외와 억압을 당하게 되었다.

이란 국민의 태반을 차지하는 이슬람교의 시아파(派)의 종교지도자 호메이니 등은 이러한 상황을 이슬람교도 공동체(움마)의 위기로 보고 본래의 이슬람원리주의에 기초한 움마의 재생과 결부시켜 국민에게 왕제 타도를 제창, 반국왕운동의 선두에 섰다. 국내의 좌익세력도 여기에서 사회적 변혁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공감하였으며, 바자 상인층도 호응함으로써 이슬람원리주의를 축으로 하는 광범한 국민결합대운동이 전개되어 팔레비왕조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이슬람공화국이 탄생되었다.

이란혁명을 추진하는 시아파 이슬람의 원리주의가 움마 재생의 이데올로기로서 종파·국적·민족을 초월하여 이슬람교도를 널리 포용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국제적 성격의 혁명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특히 페르시아만 연안 제국과 내전 중인 레바논은 혁명수출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란혁명 정권이 이란 내에서 생활하는 다른 민족집단이나 종교집단의 자치권 억압을 강화하는 경향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아파 이슬람에 기초한 변혁의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민족차별의 위험을 어떻게 단절시킬 것인가에 혁명의 성패가 달려 있다.

## 인살라

이슬람 교도의 관용구. <만약 신이 원하신다면>의 뜻. 코란 18장 23~24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일 반드시 이것을 한다'라고 해서는 안된다. 단 "신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면 된다>라는 형태로 부대조건으로서 지시되고 있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이슬람 교도는 미래에 예정된 행위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자기 한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신의 허락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신앙을 표명하는 것이며, 이를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정구로 해석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 이란 핵협상 타결과 한국경제

2015.07.15

역사적 순간이다. 현지시간 7월14일 오후 1시,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8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취임 후 시작된 협상은 23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협상단의 발표 직후,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회견을 열고 타결을 환영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 역시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 미국과 이란의 대통령이 동시에 연설하는 진기한 장면을 시청했다.

협상 타결 발표와 동시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언론에 배포되었다. CNN은 협상 결과를 두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담긴 내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큰 틀에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핵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금융을 포함한 전면 제재 완화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라는 명분을 획득했다면, 이란은 고립과 봉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실리를 챙긴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협상 타결 조짐이 보이자,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논평을 내며 이번 합의를 '역사적 실수'라고 비난했다. 미국 공화당 역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버리고 있다. 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대계 민주당 의원을 고려할 때 최후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벌써부터 미국 의회에 적극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란 의회가 대통령과 최고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준 것과 비교할 때, 미국에서 핵협상 타결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르면, 이번 핵협상은 타결-채택-시행-전환-만료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상정해야 한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휘되며 이 기간 안에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15일 이후 IAEA의 사찰이 끝나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시행에 돌입한다. 시행 과정 중 양측은 2년마다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점검하게 된다. 만약 이란이 합의문을 어길 경우, 제재는 65일 안에 복원된다.

이번이 없는 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이란은 세계 경제와 국제무역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2014년 브리티시페트롤리움(BP)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원유 매장량 3위의 자원 부국이다.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보란 듯이 하락했다. 이란은 우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에 나서고,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산업화 정책을 가동할 것이다. 닫혔던 시장이 개방되면 이란은 순식간에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모할지 모른다.

한국은 제재 기간에 이란 시장에서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원화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무역 거래 시 대체 결제가 가능하며,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했다. 제재가 완화될 경우 우리 제품이 그동안 누리던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란 경제인을 만나면 한국은 단기 수출 및 매출 증대에만 몰두한다며 특유의 인색함을 꼬집는다. 장기적으로 합작투자과 기술 이전, 현지생산 등을 고려할 때 이란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한층 배가될 것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란 제재 해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옥진 | KOTRA 이란 테헤란무역관 과장

## 시아파

'시아'는 사전적으로는 '분파'라는 뜻으로 수니파(정통파)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시아파는 수니파와 함께 이슬람의 한 갈래이며, 이 둘은 똑같이 정통 이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간혹 이 둘을 정통 이슬람과 이단으로 구분해서 보거나 민족적·종족적 의미를 담아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90%가 수니파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시아파이며, 시아파의 대부분이 이란과 이라크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므로, 시아파를 민족적·지역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이는 현재적 상황일 뿐 영속적이지 않음을 이슬람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아파가 출현하게 된 발단은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누가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를 계승하느냐에 대한 교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후일 시아파를 이루게 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족 중에서 계승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여러 면에서 예언자의 사촌동생이자, 예언자의 딸 파띠마와 결혼하여 그의 사위가 된 알리(Ali)가 적격자로 여겼다. 그러나 칼리프 선출은 선거로 대표자를 뽑는 전통에 의해, 알리가 아닌 아부 바크르를 제 1대 칼리프로 결정하였으며, 아부 바크르를 인정하지 않고 알리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후일 시아파를 형성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다. 특히 정통칼리프 중 제 3대 칼리프 오스만(Uthman)에서 제 4대 칼리프 알리로 칼리프가 계승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며 시아파가 분리된다.

## 경제용어

### 신용장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경제제재

어떤 국가의 국제법위반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른 국가가 어떠한 경제적 해악을 미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출입 금지, 자산의 동결·몰수, 항공기 탑승금지, 경제원조금지 등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후자의 국가(제재국)의 단독결정에 기초한 조치의 경우도 있지만(예 : 이란 인질사건에서 대이란 제재),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조직의 결의에 기초하여 조치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연합헌장 7장에 있어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로부터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비군사적 강제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국제연합헌장 39조, 41조). 백인 소수지배정권에 의한 일방적 독립을 원인으로 하는 대(對) 남로디지아제재(→로디지아 문제), 아파르트헤이트를 원인으로 하는 대남아프리카 무기금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원인으로 하는 대이라크 제재 등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기초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서 이루어졌고, 그 외에 국제연합총회결의에 기초하여 조치가 권고된 것도 있다(1962년의 대남아프리카 제재(총회결의 1761(X VII)), 식민지지배를 원인으로 하는 대포르투갈 제재(총회결의 1807(X VII) 등).

## 이중환율체제

이중환율제는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환율과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대개는 금융거래의 경우 변동환율을, 상업거래는 고정환율을 적용한다. 이는 변동환율만을 채택할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환투기 등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이 수출·수입에 영향을 주어 실질변수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정환율만을 택했을 경우 투기성 외화의 유출로 외환보유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환율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환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자국통화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중환율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대체로 자국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 경제여건상 화폐가치가 더 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화폐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ISSUE

이란과 수월하게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문화와 종교를 파악하고, 그것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다른 배경과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나라에 진출하여 현지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꼭 나라에 국한되지 않은 이야기도 토론해보자. 조직, 기업 등...)

야바시(Yahash)는 '천천히'라는 의미도 되지만 '신중히'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란 사람들은 일단 깊은 관계를 누군가 맺을 경우 장기적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대상을 두고 보면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친구로 대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현대통령이 이란에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가서 가 경제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는 하지만 2011년에 경제제재가 심화되었을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이란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야바시 문화가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시 미국 정부가 미국 이익 집단들을 활용하여 한국대사 및 한국기업들에게 압박을 준 바도 있었고(당시 건설사들은 경제제재 이전까지 수주했던 프로젝트들만 수행해야 했고 신규 수주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성 수금하는데 난리가 났던 곳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특유의 '단기로 치고 단기로 빠지는' 특성 때문에 현지에서 이런 야바시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삼성 전자와 대림산업 정도 밖에 없다고 평가합니다. (이란에서 인지도가 1위인 이유는 이란/이라크 전 때 자사 직원이 포탄에 맞아 순직해서 이란에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버리지 않았다 : 당시 다른 건설사들은 지점이고 현장이고 전부 철수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인들의 장기적으로 사람이나 기업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사람 기준에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한결같은을 보기 위한 그들만의 오래된 전통이자 생활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림산업의 예처럼 '어려울 때 이란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관점에서 현재까지 아국 건설사 중 대림산업이 이란 발주처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들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대림산업이 이란의 야바시 문화적 기준을 통과하여 현지인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는 말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당시 강력한 정부의 자금을 받는 중국이 이란 시장에 투자를 지속해왔고 선진국이나 일본 등도 이 때를 대비해 이미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지점과 현장을 남겨 우리나라 보다 현재 우위에 있고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는 중동 관련 전문 인력을 중용하지 못해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즉 선진국들은 이러한 이란의 야바시 문화를 잘 알고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알짜배기 프로젝트들에 대한 우선권을 지니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번 5월 초의 현 대통령의 이란 순방의 효과는 있겠지만 주요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선진국들이나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규로 이란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수업료를 치르게 될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이란 야바시 문화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일단 이란 발주처 자체가 기성을 기업체에게 안 주지는 않지만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주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야바시 문화를 활용하여 중요한 시기에는 이런 지급을 연기하거나 중요한 미팅을 보류하는 경우(무언가 이란 발주처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지지부진 끄는 것) 도 야바시 문화를 현지 이란인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기업들에게 악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바시 문화가 악용되는 사례들도 계약 측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란이 현재 전세계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들에게 이득이나 돈이 떨어지는 것은 빨리 하자고 하고 하거나 넘어가거나 자신들이 해명해야 하는 경우는 천천히 하자고 하는 경우도 이 야바시 문화를 비즈니스에서 이란인들이 악용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이란 발주처에 주택 프로젝트를 뒀다고 칩시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 주어야 할 기성금이나 관련 인허가를 담당 공무원이 내주어야 하는데 야바시 문화를 악용하여 나중에, 천천히'라고 하면서 해당 공무원이 정책에 의해 전근을 가거나 교체를 당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더 지연되는 경우도 이런 이란의 야바시 문화에 의해 나오기도 합니다.